NEW SPIRIT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Inho & Yeonji Park
Faith Academy Mindanao
PO Box 81305
8000 Davao City, Philippines
ih.park@gmail.com
agnes.yjpark@gmail.com

2012년 11월 **선교편지 제 49 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사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교회와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민다나오 섬의 추수 감사 주일은 미국이나 한국보다 일찍 찾아 옵니다. 해변 교회는 10월 첫째 주일에, 그리고 마띠 교회는 추수가 끝나는 시기에 맞추어 10월 마지막째 주일에 추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마띠 교회의 이번 추수 감사 주일 예배는 작년 이맘때를 기억하며 많은 감격이 있었습니다. 마띠 교회의 작년 추수 감사 예배는 거의 8개월간 담임 목회자가 없는 가운데 교인들 모두가 지친 상태에서 외부 순회 목사님과 함께 조촐하게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은 새롭게 증축되고 있는 예배당에서 교회 창립이래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이 충만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마띠 고등학교 학생들의 특별 순서

그동안 마치 모든 것이 정지된 것 같은 교회 였었는데, 금년 일년동안 많은 변화와 부흥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난 7월 예일 단기 선교팀이 방문한 이후 새롭게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이 많이 늘었고, 더불어서 유년 주일학교에도 새로운 얼굴들이 많아져서 이름을 외우기가 바쁠정도 입니다. 그동안 교회에 서먹서먹하게 새롭게 출석하기 시작하는 몇몇 마띠 고등학교 학생들도 이제는 제 집처럼 모두들 한식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맞추어 예배당을 증축해 주시지 않았으면 어떠 했을까 할 정도로 북적거리는 아름다운 교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감사 예배에는 그동안 관계가 넓혀진 주변 학교와, 교도소의 직원과 주민들도 초대해서 그야말로 '예배 잔치'가 벌어 졌습니다. 오전 8시부터 찬양, 간증, 부서별 발표, 기도, 말씀, 찬양, 간증,... 12시까지 진행된 긴 예배 이었지만, 기쁨과 눈물과 감사가 넘쳐 있었습니다. 마띠 교회에 가장 오랫동안 출석하시고, 또한 마띠 교회의 가장 고령자이신 83세되신 교인의 감사 간증에는 모두들 기쁨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이 감사 예배를 위해서 마띠 고등학교 학생들도 특별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예일 단기 선교팀이 이곳에서 착용 하다가 물려 주신 선교팀 티셔츠가 저들의 예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렸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대하 20:21)

마침내 예배 후에 모두들 기다리던 만찬이 베풀어 졌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Potluck' 입니다. 모두들 어려운 형편들이지만, 오늘 만큼은 모든 교인들이 집에서 한가지 이상의 음식을 정성껏 풍성히 준비해서 나누는 십시일반의 만찬입니다. 각종 채소뿐만 아니라 오늘을 위해서 그동안 집에서 키우던 닭들을 잡아 다양한 요리로 교인들을 대접하는데, 얼마나 맛이 있는지 모두들 흡족한 모습입니다. 먹고, 또 먹고, 쉬었다가 또 먹고,... 모두들 즐거움으로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감사 주일을 지나면서 비록 연약한 교회 이지만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시 한번 깊이 체험하며, 주님께 모든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배후 만찬을 기다리며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 136:12)

선교지에서의 일상은 호기심이 넘쳐나는 다양한 삶이 아니라 마치 과거에 이미 살아 보았던 환경에서 다시 사는 정지된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별로 새로운 것이 없어서 대화의 소재가 점점 더 단조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는 것이 어제 본 것과 별 차이가 없고, 이곳에서 새롭다고 하는 것들은 이미 경험한 것들이 많아서 별로 이야기 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이야기 거리가 별로 없는 평범한 일상 중에도 저희 부부에게 항상 재미있고, 미소가 저절로 생기는 대화의 소재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개 (강아지)'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저도 개를 좋아 하지만, 제 아내의 개에 대한 사랑은 질투가 날 정도 입니다. 저희 집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개들은 특별한 종류의 개들이 아닌 소위 '변견'에 가까운 잡종들이기 때문에, 제 눈에는 별로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저희가 사는 동네에 있는 모든 개들의 생김새와 이름뿐만 아니라 습성과 특징을 다 파악하고 있을 정도 입니다. 뿐만 아니라 집이 없이 돌아 다니는 유기견까지도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한동안 아침마다 집에서 별도로 개밥을 준비해서 집없이 돌아 다니는 강아지들을 먹여 살리기까지 할 정도 였습니다. 이렇게 개를 좋아 하면서도 여러가지 이유로 정작 저희 집에서는 개를 키우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의 대화는 '개' 이야기로 즐거워 하다가, 아쉬움으로 마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키웠던 개를 기억하며 이야기 할 때는, 거의 이산 가족 수준으로 안타까움을 느낄 정도 입니다.

제 아내 보다는 못하지만, 저도 가끔 학교에서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 현지인들과 '개'에 대해서 이야기 하며 즐거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현지인과 제가 키웠던 '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처음 의도와는 달리 가볍고 즐거운 이야기가 아닌 무거운 '논쟁'으로 변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키웠던 개를 영어로 지칭 하면서 'SHE'라고 표현한 것이 화근 이었습니다. 개와의 즐거운 경험을 기억하며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현지인의 얼굴이 점점 더 굳어져 가고 있는 것을 나중에야 알아 차리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야기를 듣던 현지인이 정색을 하며 "왜 개를 지칭 할 때 'IT'라고 지칭하지 않고, 'SHE'라는 인칭 대명사를 쓰느냐"며 묻습니다. 아무리 개를 좋아 하더라도 사람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표현을 개에게 쓰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초기 이곳에 정착을 하면서 주유소에서 'Fill HER up'이라는 단순한 말이 통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Fill HER up' 대신 'Full tank'라고 해야 Gas를 가득 채워 줍니다.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는 '개'를 지칭 할 때는 'HE' 또는 'SHE'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고, 'IT'라는 표현만 사용한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야기 중에 개를 'SHE'라고 표현을 하면,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현지인은 제가 사랑하는 개를 'IT'라고 응수를 합니다. 저로서는 사랑하는 개를 'IT'로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듣기가 어색하고, 마음이 안타 까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안타까움이 단순히 개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 머리 속이 전혀 다른 생각으로 혼돈스러워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즈음 '욥기'를 가지고 너무 열심히 QT를 해서 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사랑하는 개를 'IT'로 표현할 때마다 뻣뻣한 현지인의 얼굴에서 하나님 앞에서 욥을 참소하는 사탄(?)의 모습으로까지 겹치기 시작합니다. '왜 죄많은 인생을 주의 자녀라고 말씀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울만한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까?" "왜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대속해야만 했습니까?" "저들은 벌레만도 못하므로 'IT'라고 불러도 되는 자들이 아닙니까?" "저들은 HE나 SHE로도 불리우기가 아까운 하찮은 IT, IT, IT…. 입니다" ……..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저를 부를 때에 정말로 'IT'로 지칭을 한다면 어떠 했을까하는 생각으로까지 확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감사가 밀물처럼 저를 휘몰아 칩니다. 정말 'IT'라고 칭해도 할말이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롬 8:14)

저희가 개를 키울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제 아내가 개를 좋아하는 것을 잘 아는 선교사님 부인으로부터 이곳에서 구하기 힘든 진돗개 암컷을 많은 우여곡절 끝에 분양 받았습니다. 생후 2개월된 순종(?) 진돗개라고 하는데 저희 집을 제 집처럼 들락 거리는 동네 고양이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는 모습에서 출생의 비밀이 조금 의심이 되지만, 잘 기르겠다고 하고 그만 덥석 받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역시 진돗개답게 집에 온지 이틀만에 대소변을 가릴 줄 알고, 품위가 있어 보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현지인에게 저희 강아지를 자랑할 일만 남았습니다. "SHE's so, so… cute!"

SHE's so, so … cute!

그러므로 네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갈 4:7)

마띠 고등학교에서 매주 토요일 마다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동안 참여하는 학생들의 '학교 성적'에 대하여 관심을 표명하거나 강조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학생들의 태도와 성격등으로 그들의 성적을 짐작 하는 정도 였는데, 최근에 학생들의 담임 선생님과 함께 학생들의 진로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의 '학교 성적'을 확인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지난 1년동안 저희와 함께한 학생들의 성적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20명의 학생 중에서 17명이 내년 3월에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전교 1, 2등의 최상위권을 차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모두들 상위 성적 그룹에 속하여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1년전에 선생님이 저희 모임의 한 학생을 공부는 물론이고 모든 면에 있어서 '매우 느리다'라고 에둘러 걱정을 표현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성적이 전교 10등 안에서도 누구 보다도 빠르게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학교내에서 싸움꾼으로 걱정과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한 학생도, 이제는 동료들의 긍정적인 리더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적에서도 매우 앞 선 모범생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부뿐만 아니라, 각종 수상과 참여에도 이들 학생들의 성과는 단연 돋보였습니다. 놀랍게도 17명 모두가 신앙에서도, 또한 학업에서도 자랑스러운 모범생들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저로서는 이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필리핀의 학교는 5월에 새학기를 시작하고, 다음해 3월에 졸업식을 합니다. 마띠 고등학교에서도 내년 3월 졸업을 앞 두고 있는 졸업반 학생들의 진학과 진로를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재정적인 이유로 대학으로 진학 할 수 있는 학생은 아주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띠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들이 꿈꾸는 대학은 사립 대학이나 주립 대학이 아니라, 한 학기에 학비 및 제반 비용으로 $200여불 정도가 소요되는 이 지역의 농업 대학입니다. 그런데 학비가 비싼 수도권이나 타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지역에 속한 학비가 매우 저렴한 대학 일지라도 장학금을 받지 않고서는 진학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의 표정이 그리 밝지가 않습니다. 가정 형편으로 인하여 대학으로 진학을 하지 못하리라 것을 미리 짐작을 하는 학생들은, 지금까지 어렵게 살아 왔던 모습으로 또다시 살아가야 하는 두려움으로 아쉬운 졸업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몇해 전에 두 아들을 대학으로 진학 시키는 어려운 경험을 마쳤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입시의 부담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이곳에서 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진학 문제를 놓고 기도 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진학을 앞 둔 믿음의 학생들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앞 길이 활짝 열어 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 드립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네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애 2:19)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사역에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금을 보내 주실 때는 Check를 **Wycliffe Bible Translators** 앞으로 해 주시고,
Check Memo에 "**for Inho & Yeonji Park (#215049)**" 라고 기입 하신 후, 아래의
주소로 보내 주시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Wycliffe

Wycliffe Bible Translators
P.O. Box 628200
Orlando, FL 32862-8200